## 강진 한우 명품시대 활짝…축산농가 웃음꽃도 활짝



최근 방문한 강진군 신전면 수암마을 윤재구씨(39) 농가. 윤씨의 입가에 웃음꽃을 피우게 한 주인공들이 축사한편에 모여 볕을 쬐고 있었다. 대충 세어봐도 스무 마리는 넘는 듯했다. 맞춤형 계절번식으로 세상의 빛을 본 송아지들이다. 계절번식은 번식우 농가에서 가임 암소에 일괄 수정을 해 계절별로 봄, 가을철 송아지를 맞춤 생산·사육하는 방법이다.

지난 2014년 말 기준 230만원대였던 송아지 가격은 올 4월말 현재 마리당 평균 330여만원대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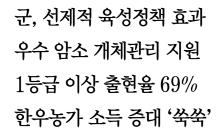
전국 한우 개체수가 260만 마리 이하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강진지역 내 암소비율은 75%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아 번식우 농가들의 소득도 확대되는 추세

강진군은 전국적인 한우 부족현상을 사전 예측하고, 지역 한우농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계체량을 늘리는 데집중해 왔다.

이 같은 강진군의 선제적 한우산업 육성 정책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전체적인 소득이 상승하면서 지역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6년 전 강진군 마량면으로 귀농한 황정민씨가 송아지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다.



◇다양한 한우 육성 시책…1등급 이상 출현율 70%대 육박=강진군은 자체적으로 한우개량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, 우수 암소 개체관리 지원, 맞춤형정액공급, 한우 등급향상제 공급,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, 혈통우전자경매시장 출하장려금 지원, 우수한우 보유농가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우수 한우 늘리기 시책을 펼치고 있다.

그 결과 지난 2013년 61%대였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15년 말 69%대로 연평균 3%포인트 상승하는 등 농가소득에 큰 기 여를 하고 있다.

6년전 귀농한 황정민(34·강진군 마량 면)씨는 귀농 초기만 해도 배합사료가격 상승과 한우가격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 을 겪었지만, 강진군의 다양한 지원에 힘 입어 부자 축산농 대열에 합류했다.

귀농 초기 20마리였던 황씨의 한우는 올 4월말 현재 110마리로 늘었으며, 연간 매 출액만 8000만원에 이른다.

황씨는 "강진군이 매년 시의적절한 한 우산업 시책으로 한우농가 지원기반을 잘 갖춰놓은 덕분에 한우를 키우는 데 큰 도 움이 되고 있다"면서 "특히 농촌지역 젊 은이들이 함께 연구하고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신사육기술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인 프라 등도 풍부해 (강진은)한우개량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적지"라고 말했다.

◇차별화된 한우 생산으로 마리당 1200만원짜리 한우도 = 대를 이은 한우농으로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들도 눈에 띈다. 성전면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우 12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김형진씨 (34). 김씨는 부친이 사육한 900마리를 뛰



■ 강진군 한우 사육 현황

- 1300여 농가 2만8000마리
- 연간 1만5000마리 거래
- 1200만원대 한우도 출하

어넘는 등 한우분야만큼은 일등 축산농을

군동면 젊은 한우농가 이경수씨(32) 역시 아버지와 함께 날마다 건초를 자르고 먹인다. 여주를 활용한 생균제 투입 등 차별화된 한우 사육으로 소득을 높이고 있다. 기르고 있는 한우만 300마리.

매매가 1000만원대 이상 한우도 강진군 한우농가의 자랑이다. 강진군은 지난 2013 년을 한우개량 원년으로 선포하고 유관기 관 단체와의 한우산업발전 협약 체결 등 한 우개량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우수 유 전형질을 만드는데 가속페달을 밟았다.

그 결과 한우 거래가격의 상승 안정세에 우수한 형질의 출하까지 이어지면서 1000만 원대 이상의 한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.

도암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여섯농가 모임인 유민영농조합법인(대표 김병림)은 2013년부터 농산부산물인 옥수수, 미강, ■ 한우산업 육성 중점 시책

- 한우개량통합시스템 운영
- 고품질 육성 장려금 지원
- 작년 '착한 한우' 브랜드 등록

단백피, 소맥피, 대두박 등을 발효시켜 자 가배합사료를 직접 만들고 가공해 먹이고 있다. 매년 배합사료비 40% 절감효과에 이은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 한우농가의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. 이 법인은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기본 원칙에 충실한 한우개 량, 사양관리로 품질 면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. 법인이 최근 3년간 출하한 거 세기준 200마리 가운데 1등급 이상이 90%로 그 가운데 1+등급 이상도 70%의 출현율에 이른다. 최근 한우를 출하한 김 경채 회원(59)은 8마리 가운데 6마리가 1+ 이상, 2마리가 1등급을 받았다. 회원 김병 림씨는 지난 4월말 충북 음성도축장에서 최고시세 가격인 1200만원을 받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.

◇ 군 대표 브랜드 '강진착한한우' 국민 밥상서 만나=올 4월말 현재 강진군은 1300여 농가에서 2만8000마리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. 이중 도축장으로 연간 8000마리, 우시장으로 5000마리, 개인간 1000~2000마리 등 연간 총 1만5000마리 안팎이 거래되고 있다.

강진군은 최근 2년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시책으로 매년 35개 사업을 추진 하는 한편 한우등록 100% 개체관리사업, 엘리트 최우수 암소선정 육성사업, 등급향상 육질개선제 공급, 한우 고품질장려금 지원, 양질조사료 생산공급, 소 안전기금 등 새로운 시책발굴에도 힘쓰고 있다. 특히 강진군은 지난해 한우 브랜드 '착한한우'를 등록하고, 한우명품관을 열어 축협과 함께 투톱체제로 한우 직거래 유통체계도 마련했다.

착한한우는 G마켓, 옥션, 11번가 등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해 언제 어디서든 지 클릭 한 번이면 밥상 위에서 맛 볼 수 있게 됐다.

강진원 강진군수는 "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한우산업 정책으로 강진 착한한우 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"이 라면서 "소비자의 신뢰 속에 강진 착한한 우의 생산을 통한 군민소득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브랜드 활성화에도 더 많 은 관심과 정성을 쏟겠다"고 말했다.

/강진=남철희기자 choul@



강진군 도암면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여섯농가 모임인 유민영농조합법인 김병림 대표가 직접 옥수수, 미강, 단백피, 소맥피, 대두박 등을 발효해 만든 자가배합사료를 한우에게 먹이고 있다.



강진원(가운데) 강진군수가 최근 강진완도축협 조사료유통센터를 방문해 강진한우에 게 먹일 사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있다. 〈강진군제공〉

## **새 주인**을 찾습니다



##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!!

70~80년된 벚꽃, 소나무, 단풍나무, 황금공작편백, 편백, 은행,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,688㎡(4,745평), 단층 슬라브 350평

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접 (매인 3,000평 분할가능)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,C 15분 / 문평I,C 5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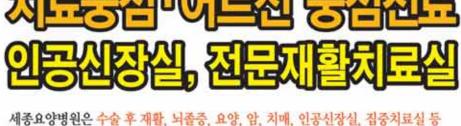


주소 |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▶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. 010-3119-6952

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-중-81650호

www.sejonghospi.com

진료내용



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.

전문 재활치료실 운영

운동/작업/통증치료실 운영

재활의학과 전

진료분야

중추신경계 -뇌신경계: 뇌출혈, 뇌경색, 외상성뇌손상, 뇌종양 -척수신경계: 외상성척수손상, 척수종양, 척수염

근골격계

수술 후 회복 재활: 인공관절치환술, 골절, 인대손상통증재활: 스포츠손상, 관절염, 근육손상, 근막통증후군



장기요양·수술후 재활·암케어병동·치매·중풍·집중치료실·인공신장실 의사·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

대표전화 (062)236-5200

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(금동 211-10